

# 농촌의 혼인 관련 인구학적 현황과

## 농촌미혼남성의 혼인과 국제결혼 관련 태도분석\*

### An Analysis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the Attitude about International Marriage of Unmarried Farmers in the Rural Area of Korea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정현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기술원 농업재해예방과

농업연구사 양순미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Professor : Chung, Hyunsook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tion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Fellow : Yang, Soon-Mi

---

####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attitude about marriage and the policy of the unmarried male farmers. The contents of research are two folds: 1) Analyze the marriage related demographic statistics of rural area using the data from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and marriage statistics in 2007, 2) survey analyses of the attitude toward marriage, perception and need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related policies from data of 170 unmarried male farm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rriage rates among over 15 years old of the rural area is 78.2% for men while 1.8% for 20~24 age group and 9.3% for 25~29 age group. The marriage rates in this area are varied by region especially low in Kyunggido & Jejudo. Second, the por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of Korean male farmers with foreign partner are 11% among all international marriages of Korean males. There are high rates of male farmers' international marriage in Junranamdo and Kyungsangbukdo which are characterized by low level of urbanization, low inter-city mobility, low rates of age group of under 15 years and high portion of over age 65. Finally,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83% of the sample lived with their parents; event though 80% of farmers think marriage is necessary, 60% had no plan of marriage because of difficulties to meet marriage partners and of lacking economic resources; they showed a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handicapped, foreigners, Afro-Americans, Westerners and divorcees as a marriage partner; they also showed negative recognition to international marriage because of observed problems of neighboring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and concerns of cultural differences; they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s concern about improving quality of the environment of the rural area and reforming the international marriage aid law was the most necessary. The discussion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added.

---

▲주요어(Key Words) : 농촌미혼남성(unmarried male farmers), 농촌의 혼인(marriage in rural area), 혼인정책(marriage policy),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 혼인에 대한 태도(attitude about marriage)

---

\* 본 연구는 2007년 농촌진흥청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 저 자 : 정현숙 (E-mail : hschung@smu.ac.kr)

## I. 연구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농촌사회는 1990년 이후 많은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농가인구는 1990년 666만 명에서 2006년에는 330만 명으로 10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농가 인구도 15.3%에서 6.8%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07). 농촌 가구구조도 변화하여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5%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고령화율도 30%에 이른다. 또한 2005년 인구총조사결과 전국 30대 미혼비율이 21.6%인데 비해 농촌 30대 미혼율은 전국 비율보다 1.6배나 높은 34.9%로 농촌총각들의 미혼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인구학적 변화 중 농촌남성들의 혼인문제는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국교가 수립된 1990년 이후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 혼인이 촉진되면서 국제결혼이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1980년대 말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같은 조상, 같은 언어와 유사한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조선족 처녀가 국내 농촌 총각에게 적합한 파트너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2006). 그러나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된 혼인이 중간에 중매 브로커들이 개입하면서 변질되기 시작되었으며, 조선족 여성들이 돈벌이를 위한 국제 취직 목적으로 위장 결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90년 전체 결혼의 1%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던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1990년 중반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2007년 국제결혼은 총 38,491건으로 전체 결혼의 11%이며, 이는 17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통계청, 2008a). 비록 2005년 이후 국제결혼 숫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2006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8,596명 중 41.0%에 해당하는 3,525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으며 이는 2005년 보다 5.1% 증가한 수치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은 농촌사회에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혼인율 증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촌미혼남성결혼지원사업”에 의한 경비지원 사업의 영향이 크다.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은 전국 246곳의 기초자치단체중 24.7%(60개)의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며, 경남(95%), 경북(82.6%), 전남(64.3%)의 시행비율이 높다(최순영, 2007). 이 사업은 연간 약 28억 원이 소요되며 수혜 대상도 574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조례의 목적 자체의 문제점, 필리핀 등 결혼중개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간 불법에 기초한 사업이라는 점,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문제, 결혼중개업체의 문제, 지자체의 지원방법과 사후관리의 부재와 관련된 문제점 등이 지적된다(김정수, 2007; 김현미, 2007; 위은진, 2007; 최순영, 2007; 한국염, 2007).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혼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의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녀교육문제, 빈곤 등의 문제 역시 증가한다는 점이다(김이선 등, 2006; 농촌진흥청, 2006, 박재규, 2006; 설동훈, 2006; 설동훈·윤홍식, 2005; 양순미, 2006; 한건수,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6). 특히 2007년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8,828건으로 총 이혼건수의 7.1%이며,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이혼건수는 2006년보다 44.5%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예,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주체인 농촌미혼남성이나 결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농촌총각에 대한 지원사업의 수립과 지속적 지원을 위해서는 농촌사회의 인구에 대한 분석과 함께 결혼의 주체인 농촌총각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즉, 대부분의 지원책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적령기 인구는 얼마나 되며 이들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지자체별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은 차이가 나고, 농촌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자체별 통계산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령,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농촌지역에서의 미혼남성의 비율 및 지역적 차이의 원인 등에 대한 기초자료 산출이 요구된다.

또한 농촌의 미혼남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태이며 연구내용도 다음과 같이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가장 큰 문제점은 농촌의 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미혼 남성들의 혼인과 관련된 연구가 수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1980년 농촌의 변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기에도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1990년대 연구들조차 1980년대 연구를 다시 문헌고찰하는 수준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김제균 미혼남성의 결혼관과 결혼욕구 및 심각성(박준희·이승희, 1988), 농촌미혼남성의 이성교제 및 결혼관도 등의 실태 분석(심중욱, 1988), 결혼문제 전반에 대한 태도와 대책 연구(최민호 등, 1985), 경제, 문화,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농촌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김영상, 1996) 등 농촌의 결혼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으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지금과는 농촌의 상황이 다른 198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김영상(1996)의 연구와 최민호 김성수와 안상근(1990)의 연구도 1980년대 연구를 그대로 반복한 문헌고찰연구이다.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이정화와 박공주(2003)의 문헌고찰연구에서 농촌미혼남성의 혼인의 문제점을 농가인구의 성별불균형, 농촌미혼남녀의 만남의 장 부재, 국제

결혼의 어려움 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도 이론적 논문이며, 더 정확한 농촌미혼남성의 문제 진단과 실태 파악을 위해 농촌청년의 결혼과 관련된 기초자료 생산이 우선 되어야 함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농촌청년의 결혼과 관련된 연구는 양적으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촌청년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첫 번째 문제점과 연관된 문제로 국제결혼에 대한 많은 대규모 연구(보건복지부, 2005; 전북발전연구원, 2005)들이 이주여성 실태조사나 정착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제결혼 과정의 핵심적인 당사자인 남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그만 두게 된 농촌남성들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미혼인 농촌청년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혼인상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청년지원책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 청년의 혼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연구주제는 이들의 현재의 혼인에 대한 인식이다. 농촌청년들의 혼인계획과 결혼관은 어떠하며, 이들의 혼인의 장애요소는 무엇이며, 왜 혼인하지 못하는가의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농촌청년에게 기존의 혼인관련 태도조사연구에서와 같이 배우자선택의 기준이나 배우자의 특성 결혼에서의 기대와 같은 요소들은 이들의 결혼 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증가 및 남성의 중국 등 아시아계 여성과의 결혼증가 원인은 오랫동안 지속된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인구성비 불균형과 여성의 자기실현욕구, 한국사회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혼인하기 힘든 남성계층이 증가한 것, 즉 결혼경사(marriage gradient) 현상으로 해석된다(정현숙, 2006). 이러한 주장은 미혼여성들이 요구하는 농촌청소년과 결혼하기 싫은 이유에 대한 연구(최민호 등, 1985, 1990)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은 결혼을 꺼리는 주요 이유로 농촌에서는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농가의 주부는 고생을 많이 하며, 농민의 경제적 수입이 낮으며, 여성 및 부모들의 사고방식이 보수적인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가부장적 의식과 맞물려 시부모를 모셔야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체적인 혼인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농촌청년들의 혼인 관련 구조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농촌미혼남성에 대한 연구의 제한점을 비추어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정확한 농촌미혼남성들의 실태파악을 위해 농촌의 혼인관련 통계 및 지역별 인구분석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자료와 혼인의 당사자인 농촌남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포함한 혼인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 결과를 통합할 경우 농촌의 미혼남성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농촌지역의 미혼을 및 혼인관련 통계를 살펴보고, 둘째, 농촌미혼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를 통해 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국제결혼 및 혼인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농촌의 미혼남성들의 혼인과 관련한 전반적인 구조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와 교육프로그램과 상담메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첫째는 농촌지역의 혼인관련 인구학적 현황은 2007년 7월~10월 동안 통계청의 통계시스템자료(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와 통계청(2008)의 “2007 혼인통계결과” 중 본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재분석하였다. 둘째, 농촌 미혼남성들의 결혼관, 혼인관련 요구도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도 파악을 위해 질문지를 통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조사의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 사회조사의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성으로 혼인경험이 없으며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이다. 전국적인 표집을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의 각시군의 농민회, 농업기술센터, 군청, 읍사무소 등 편의표집을 통해 200명에게 자료를 배부하였으며 담당직원과 지역 이장의 도움으로 질문지를 우편으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송된 자료 중 내용이 부실하거나 무응답이 많고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노인인구인 60세 이상을 제외한 170명(응답률 85%)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질문지는 크게 세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미혼남성 개인별 인구학적 특징(연령, 종교, 주거형태, 출생지, 성장지역과 규모, 출생순위, 학력, 부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 등)을 묻는 내용과, 둘째, 농민의 결혼의식(혼인계획, 배우자선택기준, 결혼의 필요성, 결혼동기, 혼인상대인식, 혼인 요구도 등)에 대한 문항과, 마지막

으로, 농촌청년지원정책의 인지도 및 만족도를 측정하고, 정책 요구도는 개방형질문으로 측정하였다. 배우자선택기준, 결혼 동기, 결혼 못하는 이유와 혼인상대인식에 관한 측정도구는 여성정책개발원(2003)의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에서, 나머지 문항은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결과표에 제시하였다.

농촌미혼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요구도 등은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연령 및 학력 등에 따른 혼인관련 인식과 태도의 차이는  $\chi^2$ 분석과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는 크게 두 분야로 농촌의 혼인관련 인구학적 특징분석과 농촌미혼남성들에 대한 혼인관련 사회조사이며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농촌의 혼인관련 인구학적 현황

본 연구에서는 혼인관련 통계 중 미혼율과 국제결혼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지역적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국제결혼 비율이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높지만, 외국여자와 혼인한 한국남자의 비율은 읍면지역과 농촌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며, 농촌총각지원책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농촌지역의 미혼율과 지역별 인구 및 지역별 국제결혼비율 및 지역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농촌지역의 미혼비율

농촌인구 중 연령별 미혼율은 <표 1>과 같다. 전국의 15세 이상 농촌인구는 309만 명이며, 48%가 남성이다. 이중 미혼남자 비율은 21.8%, 여성의 미혼율은 12.8%이다. 40대 이후 미혼율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혼인적령기인 25~29세 남성의 미혼율은 90.7%로 여성 72.4% 보다 높다. 30~34세의 미혼율도 66.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5년의 농촌의 미혼율은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표 2>와 같이 경기도와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남녀 모두 높은 미혼율을 보인다. 그러나 지역별 미혼율은 연령에 따라서 또한 같은 시도에서도 동과 읍면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광역시도로 논의를 제한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대부분 통계에서는 15세 이상 인구를 중심으로 미혼율을 계산하지만, 2006년 우리나라의 평균초혼연령(남자 30.9세, 여자 27.8세)과 연령별 결혼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20세 이상 인구를 중심으로 미혼율을 재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혼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20~49세를 기준으로 시도별 미혼율을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표 1> 15세 이상 농가인구와 연령급간별 미혼비율

연령급간	15세 이상 농가인구	15세 이상 농가인구-남 (A)	15세 이상 농가인구-여 (B)	미혼-남 (C)		미혼-여 (D)		
				명	비율 C/A	명	비율 D/B	
계	3,098,488	1,498,243	1,600,245	328,089	21.8	204,884	12.8	
전국	15~19	157,792	83,046	74,746	83,014	99.9	74,499	99.6
	20~24	149,235	77,377	71,858	76,014	98.2	66,506	92.5
	25~29	143,100	83,323	59,777	75,605	90.7	43,288	72.4
	30~34	118,706	71,006	47,700	47,112	66.3	12,684	26.5
	35~39	129,144	67,606	61,538	24,035	35.5	3,987	6.4
	40~44	185,074	89,934	95,140	12,529	13.9	1,649	1.7
	45~49	263,521	126,426	137,095	6,082	4.8	848	0.6
	50~54	284,385	131,538	152,847	1,977	1.5	456	0.2
	55~59	316,478	150,058	166,420	885	0.5	280	0.1
	60~64	351,747	160,513	191,234	391	0.2	221	0.1
	65~69	408,521	191,400	217,121	217	0.1	177	0.0
	70~74	309,279	148,482	160,797	125	0.0	156	0.0
	75~79	158,942	74,114	84,828	68	0.0	97	0.1
동 계	598,498	297,303	301,195	87,501	29.4	63,175	20.9	
읍 계	573,626	279,307	294,319	65,439	23.4	41,992	14.2	
면 계	1,926,364	921,633	1,004,731	175,149	19.0	99,717	9.9	

\* 자료: 통계청 KOSIS의 2005년 자료 재분석

<표 2> 2005년 지역별 농가인구 중 미혼인구의 비율

	15세이상 농가인구-계	15세이상 농가인구-남자(A)	15세이상 농가인구 여자(B)	미혼-계	미혼-남자(C)		미혼-여자(D)	
					명	비율 (C/A)	명	비율 (D/B)
전 국	3,098,488	1,498,243	1,600,245	532,973	328,089	21.8	204,884	12.8
경기도	403,890	201,736	202,154	92,778	54,693	27.1	38,085	18.8
강원도	190,929	94,514	96,415	32,578	20,445	21.6	12,133	12.5
충청북도	214,604	105,833	108,771	36,527	22,825	21.5	13,702	12.5
충청남도	403,340	196,749	206,591	65,700	41,068	20.8	24,632	11.9
전라북도	287,727	138,547	149,180	46,168	28,785	20.7	17,383	11.6
전라남도	434,143	201,978	232,165	57,150	36,594	18.1	20,556	8.8
경상북도	500,444	240,793	259,651	72,907	45,887	19.0	27,020	10.4
경상남도	357,697	167,324	190,373	55,806	34,261	20.4	21,545	11.3
제주도	92,386	45,462	46,924	21,325	13,008	28.6	8,317	17.7

\* 자료: 통계청 KOSIS 자료 재분석

<표 3> 2005년 도별 연령급간별 농가인구 중 미혼남성의 수와 미혼 비율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농가남 인구	미혼자 수	비율	농가남 인구	미혼자 수	비율	농가남 인구	미혼자 수	비율	농가남 인구	미혼자 수	비율
전체	77,377	76,014	98.2	83,323	75,605	90.7	71,006	47,112	66.3	67,606	24,035	35.5
경기도	13,065	12,825	98.1	14,874	13,447	90.4	11,788	7,716	65.4	10,995	3,865	35.1
강원도	4,515	4,426	98.0	4,577	4,096	89.4	4,394	2,922	66.4	4,894	1,867	38.1
충청북도	5,620	5,533	98.4	5,552	5,021	90.4	4,609	3,000	65.0	4,746	1,643	34.6
충청남도	9,786	9,556	97.6	9,650	8,560	88.7	8,671	5,641	65.0	8,050	2,882	35.8
전라북도	6,610	6,497	98.2	7,287	6,583	90.3	6,482	4,338	66.9	5,853	2,148	36.6
전라남도	8,732	8,519	97.5	8,560	7,570	88.4	8,087	5,159	63.7	8,114	2,883	35.5
경상북도	10,720	10,570	98.6	11,273	10,386	92.1	9,537	6,507	68.2	9,215	3,295	35.7
경상남도	8,030	7,920	98.6	8,561	7,853	91.7	7,483	5,017	67.0	7,474	2,649	35.4
제주도	2,922	2,871	98.2	3,660	3,284	89.7	3,712	2,307	62.1	3,490	970	27.7

\* 자료: 통계청(KOSIS)자료 재분석

<표 4>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단위 : 건, %)

구분	2005					2006					2007				
	총혼인 (A)	외국女 와혼인 남(B)	구성비 (B/A)	외국女와 혼인농림 남(C)	구성비 (C/B)	총혼인 (A)	외국女 와혼인 남(B)	구성비 (B/A)	외국女와 혼인농림 남(C)	구성비 (C/B)	총혼인 (A)	외국女 와혼인 남(B)	구성비 (B/A)	외국女와 혼인농림 어업남(C)	구성비 (C/B)
전국	316,375	31,180	9.9	2,885	9.3	332,752	30,208	9.1	3,525	11.7	345,592	29,140	8.4	3,172	10.9
서울	71,286	7,637	10.7	46	0.6	73,924	6,168	8.3	54	0.9	76,399	6,004	7.9	51	0.8
부산	18,973	1,408	7.4	50	3.6	20,017	1,468	7.3	43	2.9	21,484	1,429	6.7	34	2.4
대구	13,152	1,014	7.7	39	3.8	13,892	1,070	7.7	41	3.8	14,655	921	6.3	35	3.8
인천	16,515	2,015	12.2	54	2.7	17,261	1,572	9.1	47	3.0	18,227	1,534	8.4	26	1.7
광주	7,827	498	6.4	23	4.6	8,487	643	7.6	26	4.0	8,858	595	6.7	19	3.2
대전	9,035	779	8.6	23	3.0	9,502	687	7.2	16	2.3	9,684	636	6.6	18	2.8
울산	6,939	560	8.1	25	4.5	7,493	620	8.3	24	3.9	7,563	606	8.0	24	4.0
경기	72,431	7,341	10.1	274	3.7	77,231	6,492	8.4	289	4.5	81,248	6,409	7.9	290	4.5
강원	8,496	769	9.1	166	21.6	8,731	795	9.1	189	23.8	8,930	807	9.0	197	24.4
충북	8,390	920	11.0	192	20.9	9,291	953	10.3	208	21.8	9,834	926	9.4	178	19.2
충남	12,107	1,378	11.4	370	26.9	13,373	1,472	11.0	395	26.8	13,766	1,467	10.7	406	27.7
전북	10,196	1,385	13.6	319	23.0	10,429	1,343	12.9	341	25.4	10,864	1,312	12.1	368	28.0
전남	9,984	1,327	13.3	428	32.3	10,507	1,582	15.1	598	37.8	10,854	1,507	13.9	511	33.9
경북	14,639	1,489	10.2	482	32.4	16,178	1,885	11.7	645	34.2	16,623	1,719	10.3	530	30.8
경남	18,664	1,636	8.8	338	20.7	20,789	2,240	10.8	547	24.4	21,555	2,004	9.3	417	20.8
제주	3,382	231	6.8	53	22.9	3,576	277	7.7	60	21.7	3,495	289	8.3	67	23.2

\* 자료: 통계청(KOSIS)자료 재분석

&lt;표 5&gt; 행정구역별 인구통계학적 특징

	총인구 (A)	15세 미만	15-64세	65세이상	평균연령	성비	15세 이상
		(B)	(C)	(E)			농가인구(G)
		(B/A)	(C/A)	(E/A)			(G/A)
전 국	47,041,434	8,986,128 (.191)	33,690,088 (.716)	4,365,218 (.092)	35.6	99.5	3,098,488 (.006)
서울특별시	9,762,546	1,619,296 (.165)	7,432,406 (.761)	710,844 (.073)	35.5	98.2	10,666 (.001)
부산광역시	3,512,547	581,853 (.165)	2,626,758 (.748)	303,936 (.086)	36.7	97.7	24,758 (.007)
대구광역시	2,456,016	466,750 (.190)	1,792,744 (.730)	196,522 (.086)	35.2	99.9	47,899 (.020)
인천광역시	2,517,680	510,197 (.202)	1,828,755 (.726)	178,728 (.070)	34.2	100.6	33,485 (.013)
광주광역시	1,413,644	303,596 (.214)	1,008,868 (.714)	101,180 (.071)	33.3	98.4	39,257 (.028)
대전광역시	1,438,551	291,512 (.202)	1,046,134 (.727)	100,905 (.070)	33.8	100.4	25,122 (.017)
울산광역시	1,044,934	231,322 (.221)	757,763 (.725)	55,849 (.053)	33.2	106.1	39,247 (.038)
경기도	10,341,006	2,225,010 (.215)	7,363,393 (.712)	752,603 (.073)	33.8	100.8	403,890 (.039)
강원도	1,460,770	267,048 (.183)	1,005,728 (.688)	187,994 (.129)	37.8	100.8	190,929 (.131)
충청북도	1,453,872	278,969 (.191)	999,323 (.687)	175,580 (.120)	36.7	100.9	214,604 (.148)
충청남도	1,879,417	348,332 (.185)	1,263,286 (.672)	267,799 (.142)	37.8	101.3	403,340 (.215)
전라북도	1,778,879	338,542 (.190)	1,187,452 (.667)	252,885 (.142)	38.0	96.7	287,727 (.162)
전라남도	1,815,174	338,800 (.186)	1,155,624 (.636)	320,750 (.176)	40.1	96.2	434,143 (.239)
경상북도	2,594,719	459,153 (.176)	1,761,146 (.678)	374,420 (.144)	38.5	99.3	500,444 (.193)
경상남도	3,040,993	609,457 (.200)	2,101,716 (.691)	329,820 (.108)	36.3	100.1	357,697 (.118)
제주도	530,686	116,291 (.219)	358,992 (.676)	55,403 (.104)	35.3	98.8	92,386 (.174)

\* 자료: 통계청의 KOSIS자료를 재분석

<표 3>에 의하면 20~24세의 미혼율은 시도별로 비슷하나,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미혼율은 경상남북도가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30대 중반이후의 미혼율은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제주도가 가장 낮으며 전반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미혼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라도와 강원도지역의 40대 남성들의 미혼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 2) 농촌사회의 국제결혼 현황

2007년 외국여자와 혼인건수는 도시지역(동부)이 19,762건으로 농촌지역(읍·면부)의 8,033건 보다 많으나, 외국여자와 혼인비율은 농촌지역이 13.5%, 도시지역 7.3% 보다 높다. 특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자 7,930명 중 40.0%가 외국여자와 혼인하였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2005년부터 국제결혼이 감소 추세지만 외국여성과 결혼한 농림어업종사자 수는 증가하여

국제결혼의 지역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이후 3년간 국제결혼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 4>와 같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들 국제결혼 중 전라남도의 경우 33.3%, 경상북도는 30.8%가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이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시도간 인구이동과 15세 인구 비율이 낮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 전반적인 평균연령이 높으며, 지방색이 강한 지역이다. 또한 15세 이상 농가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으로 도시화율도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국제결혼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도시지역과는 차별화되는 농촌의 국제결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농촌 미혼남성들의 결혼의식조사

본 연구대상 농촌미혼남성 170명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6>

과 같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36.4세이며, 25~30세가 9%이며, 30~34세, 35~39세가 각각 30%로 전체의 60%가 30대이며 40대 이상도 28.3%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표 6>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n=170)

변 인	항 목	빈도(%)
연 령 (평균=36.2 SD=5.96)	25세 미만	6( 3.61)
	25~30세 미만	15( 9.04)
	30~35세 미만	49(29.52)
	35~40세 미만	49(29.52)
	40~45세 미만	32(19.28)
	45~50세 미만	14( 8.43)
	50세 이상	1( .60)
가구형태	양친과 거주	96(59.63)
	혼자거주	18(11.18)
	어머니와 거주	39(24.22)
	형제가족과 거주	7( 4.35)
	조부모와 거주	1( .62)
사는 집	자 가	142(85.54)
	전 세	7( 4.22)
	보증부 월세	3( 1.81)
	월세(사글세)	2( 1.20)
	기타(무상 등)	12( 7.23)
현재거주지	서 울	4( 2.44)
	경기도(인천포함)	3( 1.83)
	강원도	10( 6.10)
	충 북	13( 7.93)
	충남(대전 포함)	35(21.34)
	경북(대구 포함)	37(22.56)
	경남(부산·울산포함)	20(12.20)
	전북	25(15.24)
전남(광주 포함)	17(10.30)	
본인 학력	무 학	1( .62)
	초등학교	4( 2.47)
	중학교	13( 8.02)
	고등학교	77(47.53)
	전문대학	31(19.14)
	대학교(4년제)	36(22.22)
월평균소득(만원)	100만원 미만	39(23.49)
	100만~200만원 미만	60(36.14)
	200만~300만원 미만	41(24.70)
	300만~400만원 미만	13( 7.83)
	400만~500만원 미만	2( 1.20)
	500만~1000만원 미만	5( 3.01)
	1000만원 이상	6( 3.61)
주수입원	벼	77(46.67)
	과 수	24(14.55)
	노지채소	8( 4.85)
	시설채소	12( 7.27)
	화 훼	2( 1.21)
	축 산	18(10.91)
	특용작물	11( 6.67)
	기 타	13( 7.88)

\* 무응답에 따라 전체 빈도는 차이가 있음

거주하며, 충남과 경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었다. 이들 중 혼자 거주하는 비율은 약 11%이며, 가장 많은 60%가 두 부모와 함께, 24%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총 84%의 대상이 부모와 함께 생활한다. 연구대상의 82%는 부모의 집(자신의 집포함)에서 거주하며, 81%는 농촌에서 성장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의 11%가 중학교 이하 학력인 반면, 고졸이 48%,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 41%로 비교적 학력이 높은 집단이다.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3%, 200만원미만이 36%, 300만원 미만이 25%이며, 평균소득은 230.69만원(sd=281.20)이다. 이밖에도 71%는 종교가 없으며, 평균 형제자매 수는 4.08명으로 비교적 대가족에서 성장하였고, 아버지의 80%, 어머니의 87.5%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다. 47%는 벼농사가 주수입원이며, 15%는 과수재배농가, 11%는 축산농가이다.

1) 결혼에 대한 태도

농촌미혼남성들의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태도는 <표 7>과 같다. 연구대상 농촌미혼남성 중 40%만이 장래 결혼계획이 있으며, 4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본인의 결혼임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계획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대상 중 결혼이 필요 없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약 4%이며, 22.8%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도 57%로 약 80%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장래결혼계획이 없는 농촌미혼남성 중 46%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며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해 결혼하지 못하는 비율도 약 30%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에 집중되어있다. 이들의 결혼이유 또한 경제안정(21.2%)과 자녀출산(18.8%), 사회적 지위획득(11.2%)의 순으로 도구적인 이유들을 강조한다.

장래결혼계획이 학력과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위해 학력(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과 연령집단(20, 30, 40대 이상)에 따라  $\chi^2$ 검증한 결과 학력( $\chi^2=71, p=.99$ ), 연령집단( $\chi^2=3.71, p=.44$ ) 모두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대상 농업인들은 학력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장래결혼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이러한 응답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또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서의 연령이나 학력차이를

<표 7> 결혼에 대한 태도

(n=170)\*

항 목	응답범주	빈도(%)
장래 결혼 계획	예	63(40.13)
	아니오	29(18.47)
	잘 모르겠다	65(41.40)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반드시 해야 한다	37(22.84)
	하는 것이 더 좋다	92(56.79)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26(16.05)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3(1.85)
	할 필요가 없다	4(2.47)
결혼 못하는 이유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47(46.08)
	경제 기반 마련되지 않아서	31(30.39)
	결혼의 책임과 의무가 부담스러워	7(6.86)
	꼭 결혼해야 된다 생각 않기 때문에	5(4.90)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	5(4.90)
	하는 일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	3(2.94)
기 타	4(3.92)	
결혼동기	경제적 안정	65(21.38)
	자녀출산	57(18.75)
	정서적 안정	49(16.12)
	사회적 성인의 지위 획득	34(11.18)
	사랑과 애정의 욕구 충족	21(6.91)
	부모님께 효도	17(5.59)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	16(5.26)
	성적 욕구의 합법적 충족	14(4.61)
	남들이 다 하니까	13(4.28)
	인격의 성숙	12(3.95)
	친부모로부터 독립	6(1.97)

\*무응답에 따라 전체 빈도는 차이가 있음



<표 8> 인종 등 외부적 조건에 대한 배우자 선택시 선호도

(n=170)\*

조 건	결혼한다: 문제되지 않는다	주위 사람의견따른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장애인과 결혼	37(23.13)	57(35.63)	66(41.25)
백인 혹은 서구사람과 결혼	36(22.50)	41(25.63)	83(51.88)
흑인과 결혼	27(16.88)	36(22.50)	97(60.63)
아시아 사람과 결혼	55(34.38)	51(31.88)	54(33.75)
연하의 여자	130(79.75)	17(10.43)	16(9.82)
이혼자(자녀는 없음)와 결혼	62(38.75)	47(29.38)	51(31.88)
이혼자(자녀 있음)와 결혼	45(28.13)	51(31.88)	64(40.00)
종교가 다른 사람	98(61.25)	29(18.13)	33(20.63)
궁합이 나쁜 사람	80(50.00)	44(27.50)	36(22.50)
부모 안 계신 고아와 결혼	113(70.63)	21(13.13)	26(16.25)
홀아버지의 외동 딸	119(74.84)	18(11.32)	22(13.84)

\* 무응답에 따라 전체 빈도는 차이가 있음

<표 9> 국제결혼과정의 어려움과 비선호 이유

국제결혼시도과정에서의 어려움(n=35)	빈도(%)	국제결혼 시도 않은 이유(n=103)	빈도(%)
국제결혼비용이 너무 비쌌	14(24.56)	국제결혼을 생각해 본적 없음	79(38.16)
국제결혼중매업체들 횡포 심함	10(17.54)	주위에 국제결혼한 사람들을 보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짐	44(21.26)
국제결혼 관련 정보 얻기 어려움	9(15.79)	국제결혼 대한 사회적 편견 심함	16( 7.73)
국제결혼 대상국가 정보 없음	6(10.53)	국제결혼에 대해 가족의 반대	8( 3.86)
원하는 배우자 구하기 어려움	3( 5.26)	국제결혼을 위한 경제적 능력 없음	13( 6.28)
국제결혼 시기 당함	2( 3.51)	문화적인 차이, 자녀문제 등 결혼생활의 어려움 예상	45(21.74)
문화차이, 자녀문제 등 결혼생활 어려움 예상으로 포기함	12(21.05)	기 타	2( .97)
기 타	1( 1.75)	계	207(100)
계	57(100)		

\* 복수응답, \*\* 무응답에 따라 전체 빈도는 차이가 있음

보기위해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 F=0.6 (p=.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령이나 학력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 역시 차이가 없었다. 즉, 연구대상 농업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가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여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 배우자선택에 대한 인식

농촌미혼남성들의 배우자 선택 시 인종 등의 외부조건에 대한 인식은 <표 8>과 같다. 이들은 다른 요인에 비해 아시아인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세 반응항목 모두 비슷한 비율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흑인(61%), 서구사람(52%), 장애인(41%)의 순서로 비선호가 뚜렷하다. 반면 연하여성(80%), 외동딸(75%), 고아(70.6%)의 순서로 선호도를 나타낸다. 종교가 다른 사람(61%)이나 궁합 나쁜 사람(50%)과 결혼하겠다는 비율도 높아 일반적 전통적 규범과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인다. 자녀가 없거나(32%) 자녀가 있는(40%) 이혼자에 대한 비선호는 아시아인과 절대 혼인할 수 없다(34%)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선호의 경우에도 주변사람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혼자, 장애인, 아시아인의 경우 주변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3) 국제결혼 태도, 지원 대책 인식 및 만족도

(1)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 농촌미혼남성 응답자 중 73.68%가 국제결혼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지적하는 국제결혼과정의 어려움과 비선호 이유는 <표 9>와 같다.

국제결혼을 시도해 본 대상자 중 가장 많이 지적한 어려움은 비싼 비용(24.6%),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한 우려(21%), 중매업자들의 횡포(17.5%), 국제결혼(10.5%)이나 대상국가(10.5%)에 대한 정보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농촌미혼남성들이 결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국제결혼자체에 대한 거부(38.2%), 주변 국제결혼부부의 문제점 관찰(21.3%),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한 우려(21.7%)가 지적되었다.

(2) 농촌미혼남성 지원정책 인지도/만족도

농촌미혼남성들의 혼인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표 10> 농촌미혼남성 혼인관련 지원정책 아는 빈도, 이용경험 및 만족도

지원정책	인지정도 빈도(%)*	이용경험 빈도(%)	만족도 (평균, sd)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89(59.73)	.	.
결혼이민자지원센터	34(25.19)	2(1.92)	2.14(1.05)
건강가정지원센터	36(26.67)	3(2.86)	2.35(1.01)
무료합동결혼식	57(40.43)	.	.

\*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와 비율

<표 11> 농촌미혼남성의 혼인관련 국가지원 필요영역과 개선점

(개방질문)

영역	국가지원에 대한 요구내용
농촌환경 개선 관련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을 위한 정책 실시</li> <li>· 기본적 농업정책 필요</li> <li>· 소득창출 및 고소득 창출 선행</li> <li>· 농산물 가격인상과 안정, 농가소득 확대보장, 농가지원 사업 확대</li> <li>· 지원금 증대, 재정적 지원</li> <li>· 농촌지역 생활 여건 개선 및 경제력이 충족되는 농업이 되도록 지원.</li> <li>· 무분별한 농업개발 지양과 농업인소득부양책</li> <li>· 농업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농기계 보급 등 농업보호 노력</li> <li>· 지자체 이관보다 정부정책으로 지속적 지원</li> <li>· 농촌교육여건이나 문화·복지시설 투자 증대</li> <li>· 농촌생활수준 개선(교육, 의료 등)</li> <li>· 여가활동 공간 증대, 복지시설 지원과 홍보</li> </ul>
국제결혼 관련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분별한 국제결혼 추진보다는 질적이고 믿을 수 있는 지원 필요</li> <li>· 언어문제를 극복하는 제도 마련</li> <li>· 혼인 후 도망 방지장치</li> <li>· 브로커의 개입 방지</li> <li>· 외국인과의 결혼을 법적으로 강화</li> <li>· 무분별한 국제결혼 지양</li> <li>· 국제결혼 후 이혼/타향 이주의 문제점</li> <li>· 직업 소개 필요함</li> <li>· 나이제한 철폐</li> <li>· 비용문제, 중매업체 문제</li> <li>· 배우자의 국내 적응 프로그램 제공</li> <li>· 홍보강화 및 사실 결혼회사 단립방지</li> <li>· 문화,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정책 프로그램 지원</li> <li>· 아내 성품 우선한 배우자 선택지원</li> </ul>
결혼 지원과 결혼후 생활 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은 사생활이므로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함</li> <li>· 국내 여성과의 결혼장려</li> <li>· 결혼 알선</li> <li>· 농촌도시미팅추진, 도시처녀 농촌체험 추진</li> <li>· 교육비 등 지원</li> <li>· 신혼집 지원, 내집마련 혜택</li> <li>·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li> <li>· 자녀 사교육비 지원</li> <li>· 출산정책 개선</li> <li>· 결혼 후 자녀 보육환경 개선</li> <li>· 농촌 이혼 남성 조사 및 홍보</li> <li>· 미혼 남성들의 결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li> </ul>

와 이용경험 및 만족도는 <표 10>과 같다. 전반적으로 국제결혼 비용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약 60%가 인지하고 있으나, 다른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이용경험도와 만족도 또한 낮아 지원사업의 홍보와 내용 모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지원내용에 대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은 <표 11>과 같다. 이들의 응답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농촌의 환경개선, 국제결혼관련제도개선과 결혼정책 및 결혼 후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로 구분된다. 이들은 농촌의 생활,

교육, 여가를 위한 문화적 여건 개선, 경제력 보장 정책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관련 제도정비에 대한 요구로 국제결혼관련 브로커의 문제, 결혼이후의 적응을 위한 지원 및 비용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결혼 후 농촌정착을 위한 신혼집 등의 경제적 지원책과 자녀교육지원책에 대한 요구 등 농촌 삶의 개선을 위한 전반적 요구를 혼인관련요구와 동일시하여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 IV. 요약과 논의

본 연구는 농촌에서의 국제결혼과 이들 국제결혼가족의 문제점이 증가하지만, 농촌의 인구학적 실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결혼대상인 농촌 미혼남성들에 대한 연구가 수적으로도 제한 될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포함한 농촌청년들의 혼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미혼남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농촌청년들의 국제결혼율과 지역별 미혼율 등 농촌의 인구구조를 분석해 보고, 농촌미혼남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포함한 혼인관련 인식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전국의 15세이상 농촌인구 중 미혼남자의 비율은 21.8%이며, 25~29세, 30~34세 남성의 미혼율은 각각 90.7%, 66.3%로 전국의 30대 미혼율 21.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농촌의 미혼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경기도와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남녀 모두 높은 미혼율을 나타낸다. 혼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20~49세를 기준으로 시도별 미혼율은 경기도와 제주도가 가장 높으며, 20~24세의 미혼율은 시도별로 비슷하나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미혼율은 경상남북도가, 30대 중반이후의 미혼율은 제주도가 가장 낮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초자치단체 중 전남(95%), 경북(82.6%), 전남(64.3%)의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의 시행 비율이 높다는 최순영(2007)의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즉, 2006년 농촌미혼남성 결혼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미혼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 않으며, 각각의 시도에서 조차 조례가 있는 지역의 미혼율이 높지 않은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이들이 조례를 시행한 의도가 다분히 정치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앞으로 각 지역의 지역적 인구특성과 미혼율의 분포를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2007년 국제결혼 건수는 38,491건이며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결혼은 29,140건이다. 외국여자와의 결혼의 11%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율이지만, 이 비율은 지역에

따라 0.8%에서 3.9%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지역별 국제결혼자들의 분포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라남도가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국제결혼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시도간 인구가동과 15세 인구 비율이 낮고, 65세이상의 인구가 많아 전반적인 평균연령이 높으며, 지방색이 강한 지역이며, 도시화율도 낮은 지역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국제결혼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지만,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남아있다고 추측되는 지역에 국제결혼이 많다는 것으로 국제결혼가족의 갈등과 적응의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한민족”주의와 혈통주의 및 인종적인 면에서 배우자 선택 시 족내혼의 성격이 강한 국가에서 국제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가족구조에 대한 인식과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농촌의 미혼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산정책과 관련된 무조건적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 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남성 170명에 대한 혼인관 등에 대한 사회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농촌미혼남성들은 평균연령이 높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6.4세로 2006년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초혼연령 30.9세(통계청, 2007a)보다 높으며 40대 이상도 28.3%를 차지하여 규범적인 결혼연령을 넘긴 집단이다. 그러나 83%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며 부모의 집에서 거주함으로써 부모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래 결혼계획이 있거나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으며, 결혼할 사람이 없거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해 결혼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다. 장래결혼계획이나 결혼에 대한 태도는 학력이나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장래결혼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비율이 60%에 달하나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0%이상을 차지하여 결혼을 원해도 할 수 없는 이들의 농촌의 구조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들은 장애인, 서구사람, 흑인, 이혼자들과의 결혼에 부정적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미혼인 농촌남성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결혼에서의 중요한 항목에서는 서울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정현숙(2004)의 연구와 차이가 있는데, 서울의 미혼남녀들은 사랑, 상호신뢰, 경제적 안정,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지적한 반면, 이들은 신뢰감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응답해 국제결혼 등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의 미혼남성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로 국제결혼을 지원하

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3) 농촌미혼남성들은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으며 국제결혼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의 국제결혼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주변에 사는 국제결혼부부들의 문제점을 관찰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우려로 증폭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농촌미혼남성들의 혼인관련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및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홍보와 이들의 적응을 지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국제결혼관련제도개선과 결혼정책 및 결혼 후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므로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중요 현안인 주택과 교육의 문제로 농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결혼 후 농촌 정착을 위한 주택에 대한 지원과 자녀교육지원책이 함께 고려될 때 농촌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태도와 요구도에서 보듯이 결국 국제결혼은 농촌결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촌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이 농촌청년들의 혼인을 위한 선행요소를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농림부 국정브리핑자료(2006. 9. 26)에 의하면 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 젊은이를 교육시켜 농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과 1촌 1CEO 육성정책 등이 제안되고 있다. 김병률(2007)도 후계인력 육성과 조직화가 농촌의 경쟁력임을 강조하며 국제화시대에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사람'과 관련한 핵심 방향은 '후계인력 확보', '농업리더·전문경영인(CEO)의 양성'과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농촌청년들은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관계망적인 의존도가 높고, 결혼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결혼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고,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의 미혼율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이들의 교육수준은 이전세대보다 높기 때문에 다음세대에 농가의 비율은 지금의 감소 속도보다 더 급속히 변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의 요구가 체계적인 정책으로 개발되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표집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역별인구분석에서 혼인율이 높았던 제주도지역의 미혼남성들을 표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농촌의 경향으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시행된 지자체의 혼인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석으로 지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 확대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농촌의 지역별 미혼율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혼인관련 요구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농촌의 미혼남성들의 혼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병률(2007). 후계인력 육성과 조직화가 경쟁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4월, 오피니언.
- 김영상(1996). 농촌의 현실과 농업경영자의 결혼문제. **최고관리자과정 논문집**, 9, 237-242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수(2007). 농촌에서 바라본 국제결혼. 농어민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 김종분(2007). 해남군 지역사례.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 김현미(2007).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논평.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 농촌진흥청(2006). **농촌국제결혼 정착방안**.
- 대한법률구조공단(2007. 5. 29). 보도자료. '외국인' 법률구조 신청 급증.
- 박재규(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전북지역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3), 67-84.
- 박준희·이승희(1988). 농촌 미혼남 결혼문제에 있어서의 사회기관의 역할 - 김제군 지역을 중심으로. **원광사회복지학**, 19-39.
- 보건복지부(2005)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 법무부출입국관리국(2006). 국제결혼실태와 위장결혼 방지방안.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기법연구 보고서, 557, 140-145.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설동훈(2006).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회도서관보**, 43(5), 2-3.
- 설동훈·윤홍식(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자료집(247-265).
- 심동욱(1988). 한국농촌미혼남성의 결혼문제. 명지논단.
-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 및 생활상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한국농촌사회학회**, 16(2), 151-179.
- 윤순덕·박은식·김은자·조영숙(2006). 농촌 성인남녀의 결혼에 대한 의식 분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3(1), 15-17.
- 이정화·박공주(2003). 농촌청년 결혼문제와 현실과 대안. **한국**

**지역사회생활과학지, 14(2), 217-222.**

- 여성정책개발원(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위은진(2007).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의 법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전북발전연구원(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91-101.  
 정현숙(2006). 혼인을 특성 변화요인 분석과 가족정책 제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177-193.  
 최민호·김성수·서규선(1985). 농촌청년의 결혼문제 실태와 대책. **서울대농학연구지, 10(1)**, 79-83.  
 최민호·김성수·안상근(1990).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발생배경과 대책. **서울대농학연구지, 15(1)**, 63-67.  
 최순영(2007).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정책 현황 분석. 농어민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통계청(2007). 2006년 농업 기본통계 조사결과.  
 한건수(2006). 농촌지역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지, 39-1**, 195-243.  
 한국엽(2007).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밀성 재구성을 위한 과제. **국회도서관보, 44(5)**, 18~29.  
 홍달아기·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 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 15(5)**, 729-741.  
 통계청(2007). 2006년 농업 및 어업기본총계조사결과.  
 통계청(2008a). 2007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2008b). 2007년 이혼통계 결과.  
 농림부 국정브리핑자료(2006. 9. 26).

- 접수일 : 2008년 09월 30일
- 심사일 : 2008년 11월 19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2월 11일

